

순천시, 2022년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 박차

조직위 발대식...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돌입 대회 분위기 조성·홍보 활동 적극 전개 예정

순천시는 오는 2022년 4월 22일 순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지난 9월 30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허석 순천시장, 허유인 순천시의회위원장,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및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0인 이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수인원 3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여명의 조직위 위원들은 온라인으로 발대식에 참석했다. 조직위원회는 각계각층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153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대회 준비 및 다각적인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남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은 대회기 이양식, 위촉장 수여 및 결의문 낭독, 전남체전 준비상황 보고와 예산 및 조직·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의결 등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 행사 가운데 '위촉장 퍼포먼스'는 참석 조직위원 전원이 위촉장을 들고 흐르는 활기찬 퍼포먼스로,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위원회의 소속감 고취와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9만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분위기 조성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2년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순천시가 전국적인 스포츠의 메가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대회"라고 전하며, "조직위원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022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팔마종합운동장 등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23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성공리 폐막

명창부 대통령상에 '유재순' 서편제 보성소리와 판소리의 명맥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열린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판소리의 본고장 보성군에서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무관중으로 진행된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에는 판소리의 본고장답게 전국 각지에서 실력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최고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유재순(58세, 여)씨가 선정되어 트로피와 시상금 4천만원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는 고수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에는 김성찬(22세, 남)씨가 시상금 천만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헌 명예대회장은 "앞으로 후학 양성을 위해 소리를 물려주는 데에 전념하겠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성소리를 전수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서편제 보성소리의 분향으로 보성은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성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늘날의 보성소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리축제는 서편제 보성소리의 거장 조상헌 국창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진)주관으로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판소리성지 등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진 문업체가 대회 기간 동안 경연장을 전담관리하였으며, 경연자, 심사위원 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석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축제 참여가 가능하였다.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진행된 이번 축제는 KBS1 공영방송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방송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업무협약 체결·지원단 운영

수색·감시 등 공공부문 드론 활용도 확대 추진

고흥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관내 공공기관(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육군 7391-2부대)과 드론업체(마린로보틱스㈜)가 함께하는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종자 수색, 산불 예방, 불법소각 예찰, 해안가

안전사고 예찰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서 지원단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은 공공기관에서 드론 지원 요청 시, 업체에서 현장 출동하여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고 고흥군에서 업체에게 드론 장비, 출동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20일까지 단속

여수시가 10% 특별할인 및 국민 상품권 지급 등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시안이 심각할 경우 국제정세 사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시, 골약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오는 12일부터 업무 개시...주민 중심 기능복합형 청사로



광양시는 성향·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추진한 골약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신청

업지구에 포함되어 철거됨에 따라 시작했으며, 지난 2019년 11월 첫 삽을 뜬지 22개월 만에 임시사무실에서 신청사로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청사(성향6길 15번지)는 총건립공사비 89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2,975㎡ 규모로 건립됐으며, 시 최초로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건축공법(Passive House) 적용과 함께 녹색건축물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취득해, 시민 누구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주요시설로는 민원실, 중대본부, 농업인상담소와 각종 프로그램실 및 교육장, 체력단련장, 다목적 강당을 갖추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